



차주.

6월 23일 미국 펜실 바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병원. 3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왼쪽 팔 소매를 걷어 부쳤다. 주위를 가득 메운 50명 남짓한 사람들은 바른 침을 삼킬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간간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 흑인 여성 간호사가 이 남자에게 주사하는데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자. 보십시오. 거뜬하지요. 이제 에이즈치료를 위한 매우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환호성이 이어졌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인류의 노력이 마침내 인체실험이라는 새로운 장(章)을 열었다. 바로 이날 국제에이즈치료의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hysicians in AIDS Care, 이하 IAPAC)는 미국내 필라델피아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30여개 대도시에서 5천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최초의 에이즈 백신 임상실험을 일제히 시작했다.

이번 인체실험을 주도해온 국제에이즈치료의사협회(IAPAC)는 전세계 42개국에서 의사 에이즈운동가, 정부기구 등 5천5백명의 회원을 갖춘 에이즈퇴치운동을 벌여온 최대 민간기구다. 90년대 초 발족한 이후 에이즈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운동을 주도해 왔다. <인터넷홈페이지=<http://www.iapac.org>; 전화=1-312-419-7512; 전자우편=iapac@iapac.org>

이날 수십명의 보도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백신을 주사받은 자원자는 마크 와킨스(38)박사로 에이즈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삶의 좌표를 새로이 설정한 의사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시카고에서 국제 에이즈치료의사협회(IAPAC)가 에이즈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에이즈백신 개발을 위해 인체실험을 계획하자 목숨을 걸고 이에 참여한 ‘50인의 십자군’ 가운데 한명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21일 시카고 트리뷴지가 1면 머릿기사로 이들의 영웅적 희생정신을 소개한 이후 전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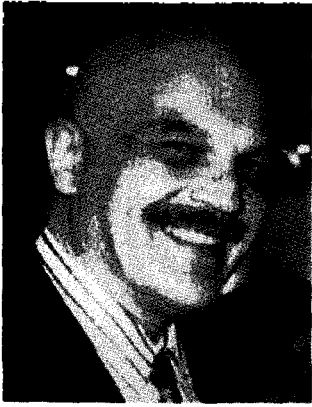
이번 실험은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의 공식 승인에 앞선 마지막 단계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백신젠사(社)가 개발한 에이즈 백신(상품명 에이즈백스)을 자원자들에게 향후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주사하고 면역시스템 및 항체형성의 과정을 살피게 된다.

이번에 자원한 5천명의 자원자들은 앞으로 3개월마다 백신 또는 영양제를 주사 받는다. 영양제 주사는 일반적인 위약(僞藥 플라시보)테스트 차원에서 주사한다. 후속 관찰 작업으로 이들은 △혈액검사를 받으며 △연구팀과 성(性)생활에 대한 면담에 응하게 된다.

현재까지 자원자들은 크게 두갈래로 볼 수 있다. 에이즈치료의 현장에서 ‘인류의 천형(天刑)’이 처참함을 목격하며 에이즈치료를 필생의 과업으로 설정한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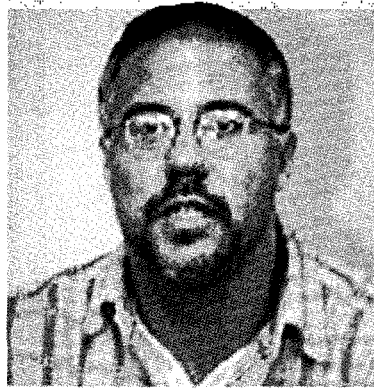
신개발 백신 인체실험 돌입

기자



IAPAC의 고든 나리총장

“백신 실험이 인체실험인 만큼 당연히 위험이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둔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동물실험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백신주사를 맞은 마크 와킨스박사

“저, 모십시오. 백신주사를 맞았지만 걱정하지요. 이제 에이즈 치료를 위한 매우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이 백신은 완능성 바이러스가 아닌 약화된 바이러스라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습니다.”



에이즈보건재단의 파당국장

“에이즈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면 하루에도 8천명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곳에서 자원한 의사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대부분 에이즈환자들과 생활하면서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들이 첫번째 그룹이고 에이즈 감염확률이 높은 동성애자들 또는 동성애자의 배우자 또는 연인들이 두번째 그룹이다.

현재로서는 백신의 위험성 여부가 최대 논란거리다.

와킨스박사는 “이 백신은 활동성 바이러스가 아닌 약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들어진 만큼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다”고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만일의 경우 감염된다 하더라도 에이즈치료제 개발회사들이 조기에 발견할 경우 에이즈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에이즈백신은 살아있는 있지만 약화된 형태(a live attenuated)의 백신이다.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분자구조의 일부를 복제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불완전한 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분명히 스스로 성장해 “절반쯤(silent)”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인체내부의 항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향후 실제 에이즈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IAPAC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약화바이러스일지라도 수천명에게 동시에 투약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의학자들도 와킨스박사와 IAPAC의 가설(假說)대로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회 세계에이즈 학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의미있는 실험결과가 보고됐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다나 파버 암연구소에서 에이즈를 연구해 온 부스 부프리트 박사는 “지난 5년간 15마리의 성장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에이즈 백신이 초기에는 원숭이 에이즈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

주는 역할을 했으나 결국에는 에이즈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것. 즉,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성이 약화된 바이러스가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C형 간염바이러스가 이같은 변형 속성으로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루프렛 박사의 실험에 이용된 원숭이 15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에이즈로 죽었고 세 마리는 혈액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강도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실험 결과에 대해 "에이즈를 막기 위해 살아 있는 백신의 개발이 아직 충분치 못한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금치 않았다. 84년 에이즈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한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험에 참가한 자원자들의 표정은 밝다.

에이즈퇴치 운동단체인 '필라델피아 파이트(fight)' 소속으로 이번 실험에 참여한 페트르 프론사티는 "참여자들의 진지하고 희망찬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게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IAPAC의 고든 나리 사무총장은 "인체실험인 만큼 당연히 위험이 따를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이대로



둔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동물실험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스스로 백신테스트에 자원한 에이즈보건재단의 파딩(Farthing) 국장도 비슷한 입장이다.

"에이즈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면서 하루에만 8천명의 생명이 사라져갑니다. 오늘 이곳에서 자원한 의사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대부분 에이즈 환자들과 생활하면서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술받다 HIV에 감염된 한 소년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에이즈 백신실험에 아무런 고민없이 자원한 회원도 있습니다. 이들은 실험 결과에 따라 목숨을 잃는 것 보다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 치료제 개발이 수년씩 뒤쳐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첫 실험 결과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현재, IAPAC측은 실험결과에 대해 이렇다할 보고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첫 실험이 실시됐다는 보도를 접한 후 전 세계에서 자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끝없는 도전정신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고 에이즈보건재단의 파딩(Farthing) 국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A**



에이즈백신·상품명 에이즈백신을 연구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백신회사 실험실